인문연구 제9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3, No. 1, pp.119~148
http://dx.doi.org/10.21211/JHUM.93.5

그리스 희극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 전망:

『뤼시스트라테』와 『민회의 여인들』에 나타난 집단지능*

홍은숙**

〈차 례〉

1. 들어가며
2.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성파업과 점거운동
3.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인간증강과 증강현실
4. 집단지능과 새로운 인식론적 영웅
5. 나오며

【국문초록】

고대 그리스 드라마는 '개인의 영웅적 행위로 실현되는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추구'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집단지능으로 표상되는 공통적인 것의 회복'과 같은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고민과 축제의 장이었다. 전자는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며, 후자는 그리스 희극의 특징이다. 이 글은 인간의 집단지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28526)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부교수

을 인간 고유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을 고찰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행동으로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삶 공간을 생성하여, 인간 존재의 지평을 넓혀 놓는다.

『뤼시스트라테』에서는 전쟁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해 여성인물들의 성파업과 아크로폴리스 점거운동이 일어난다. 『여인들의 민회』에서는 여성인물들의 민회 참여라는 극적 행동을 통해 남녀노소의 성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실험된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은 집단지능으로써 적군과 아군과 같은 분리 장벽과 온갖 차이를 극복하여 상호 호혜적 생활 방식(삶정치)이라는 공통적인 것을 회복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가 이전과는 다른 지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론과 그간의 무대와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텍스트 해석학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공존과 공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로써 새로운 인간 가능성과 인간 고유성을 탐색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전망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글은 그리스 희극에 나타난 집단지능의 가능성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전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주제어: 『뤼시스트라테』, 『여인들의 민회』, 집단지능, 인식론적 영웅, 성파업, 점거운동

I. 들어가며

디오니시아(Dionysia)에서 공연된 고대 그리스 드라마는 '개인(individual intelligence)의 영웅적 행위로 실현되는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추구'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표상되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회복'과 같은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고민과 축제의 장이었다. 전자는 고전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며, 후자는 고전 그리스 희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리스 희극에 나타난 보잘것 없었던 주변부(periphery)의 일반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면서 집단지능을 발휘하여 더 나은 공동체와 삶 정치(bio-politics)를 지향하는 연극적 행동에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post-humanist perspectives)을 도출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 드라마는 삶과 정치가 어우러지는 공동 참여 축제를 기반으로 한다. 축제와 연극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평등을 신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들은 "전쟁이 한 창인 때에도 극장에서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E 446 - BCE 386)의 반전극에 갈채를 보냈다."[1] 극의 소재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공동경험과 지식(인식론)에 근거했고, 시민들의 함께하기와 자유로운 표현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근대 드라마(modern drama)의 '제 4의 벽' 개념은 고대 그리스 희극에서 의미를 잃는다. 특히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무대와 관객의 함께하기로 진행되었다고 할 정도로, 관객은 수용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였다.[2]

귀족주의적 심포지엄(symposium)과는 달리 희극은 시민 참여적 자치와 자율의 민주주의적 문화를 표상한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에서는 공동체와 정치와 삶이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이 글에 서 논의 할 『뤼시스트라테』(*Lysistrate*, BC 411)와 『여인들의 민회』

---

1) C. L. R. 제임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녹색평론』, 김종철 옮김, 통권 제 141호. 〈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1296〉.

2) 소크라테스(Socrates)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공연을 자주 관람하였고, 무대에서 소크라테스 역을 맡은 배우(소크라테스의 가면을 쓴 배우)와 객석의 소크라테스가 소통을 하기도 했으며, 관객들은 현실과 재현의 교차에서 웃음을 통한 정치적 풍자와 정치 참여를 경험하였다.

(*Ekklesiazousai, Assemblywomen*, BC 392)는 디오니소스 극장과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과 민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자치와 자율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개념을 표상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BC 431-BC 404)을 겪으면서 삶과 정치가 맞닿아 있다는 삶정치의 문제를 재현의 무대에 올린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재현하는 삶정치는 전쟁 종식, 평화 회복, 자원의 공정 분배, 그리고 나눔과 보살핌과 같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파네스가 '공동체의 삶의 방식'(=정치)에 천착하였기 때문에, 정치 극작가로 일컬어 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공동체의 삶(삶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력과 위계(지배/피지배)와 같은 식민 권력 구조(colonial matrix of power)를 의미하지 않는다.[3] 아리스토파네스는 삶정치와 공통적인 것을 집단지능으로 실현시키려고 한다.

아리스토파토네스는 '현실 풍자'와 '삶정치'라는 극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천착한 구희극작가이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몇 번이나 휴전 조약을 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삶정치를 파괴하는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목도한 후, 더 이상 현실 풍자가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인들에게 절박했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무대에 올린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서 현실 정치에서 한 번도 시도 되지 않았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행동'으로 삶정치를 재현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주인공들은 신화 속 주인공도 아니며, 고대 그리스 사회의 인간상을 표상하는 영웅(hero)도 아니며, 투키디데스(Thukydides)의 역사와 호메로스(Homeros)의

3) 이 글에서의 '식민'(colonial)은 제국주의적 지배방식이라기 보다는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부당하고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화 어디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기원전 5세기의 여성인물들이다. 뤼시스트라테(Lysistrate)와 프락사고라(Praxagora)와 같은 아리스토파네스의 여성인물들은 비극에서 볼 수 있었던 오이디푸스(Oedipus)와 크레온(Creon), 아가멤논(Agamemnon)과 오레스테스(Orestes),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와 제우스(Zeus)와 같은 권력 체계(matrix of power)의 갈등 관계에 철저히 배제되어 공동체의 삶과 정치에의 접근권이 없었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는 관객들에게 사전 지식이라고는 제공될 만한 스토리가 없었던 그저 주변부의 일반 사람들이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는 현실에서는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여서 한 번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대 담론을 영웅적 인물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야기로 전환하여 공론화 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여성인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강력한 집단지능을 발휘했을 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던 주변부의 불가능한 상상은 재현의 힘을 갖게 된다. '점거운동'과 '성 파업'과 '민회 참여'라는 주요 연극적 행동은 주변부의 여성인물들에게 철저히 금지되었던 자치와 자율의 정치 참여이며 동시에 '전쟁이 아닌 평화' 그리고 '재화의 균등한 배분'과 '민주주의의 실천'과 같은 '공통적인 것'의 회복을 지향한다. 이들은 집단지능으로써 다름 아닌 '공통적인 것'이라는 삶정치의 토대를 다진다.

고전 그리스 드라마는 고도의 상징적 행위로서 삶과 정치를 표상하는 비전의 영역이다. 고전 그리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문제제기와 가치추구를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공동체의 참여적 자치 형식을 고안하였듯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비전이 결정된다. 이 글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에 나타난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집단지능으로 실현되는 평화와 공존과 같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삶정치에서 인간 생명의 고유성과 인간 지능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전망'(post-humanist perspectives)을 제시한다. 또한 가려지고 배제된 인물들의 함께하기가 일궈낸 집단지능에서 네트워크 지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글은 새로운 인간 가능성을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2.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성파업과 점거운동

1) 성파업과 반전 평화 운동

『뤼시스트라테』의 사회적 배경은 전시 상황이다. 『뤼시스트라테』는 『아카르나이 구역민들』(*Ἀχαρνεῖς The Acharnians*, BC 425)과 『평화』(*Εἰρήνη, Peace*, BC 421)에 이어 아리스토파네스 전쟁 희극의 마지막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 드라마에서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표상한다. 전쟁은 상명하복과 같은 위계와 복종을 요구하며 민주적 참여와 절차를 유예하는 전시 체제를 강요한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트로이의 여인들』(*The Trojan Women*, BC 415)과 같은 전쟁의 참혹상을 재현하는 비극 작품과는 달리 『뤼시스트라테』는 BC 5세기 폴리스 체제에 만연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전 그리스 드라마와 차별성이 있다. 민주주의의 장애물인 전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 『뤼시스트라테』의 주인공 뤼시스트라테(군대를 해산하는 여자)는 두 가지 기발한 반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전 사상과 반전 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치와 자율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여성인물들에게서 촉발된다. 뤼시스트라테는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남자들이 전쟁을 종식시킬 가망이 없자, "중대사를 의논하자고 여자들에게 아크로폴리스에 모여라"(L. 15)고 한다.[4)]

뤼시스트라테: 보이오티아 여자들과 펠로폰네소스 여자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모이기만 하면 힘을 모아 헬라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L. 39-41)

칼로니케: 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그런 민감하고 거창한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L. 42-43)

막이 오르면서 그리스 전역의 여성인물들이 한 곳에 모여 "여인들의 민회"(L. 93)를 개최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여자들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토로가 이어진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뤼시스트라테는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뤼시스트라테는 "여러분은 나를 도와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나요"(L. 112)라며 "함께하기만 하면"(L. 143)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뤼시스트라테는 아테네 폴리스 민주정에서 참정권이 없었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뒤집고 젠더적 한계뿐만 아니라 기원전 5세기라는 아테네 폴리스의 인간상 너머를 상상한다.

하지만 다른 여성인물들은 "우리는 동침하고 출산하는 것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L. 142)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운다. 뤼시스트라테는 "그렇지 않아도 여자는 남자와 달리 이성이 딸려서 성적 욕구를 저지하지 못하고 망나니같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대로 여성들이 행동해야만 하겠느냐"(L. 140)고 다그치며, '성 파업'(Sex Strike)과 '아크로

4) 앞으로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작품 인용은 행(Line) 번호를 표기한다.

폴리스 점거'(Occupy the Acropolis) 운동을 제안한다.

뤼시스트라테는 "남근을 삼가야 해요"(L. 124)라며, 아군과 적군을 총망라하여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의 여성들에게 남자들이 전쟁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남자들과 잠자리를 거부하자는 성파업을 제안한다.

> 뤼시스트라테: *(람피토에게)* 하지만 사랑하는 라코니케 여인이여, 그대가 나와 함께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게 투표해주세요.
> 람피토: 두 분 신께 맹세코, 여자가 남근 없이 혼자 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 해도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해요. (L. 142-145)

아테네의 뤼시스트라테와 스파르타의 람피토(Lampito)는 성파업의 성공으로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성파업의 성공은 전쟁 주도 세력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모든 여성인물들의 함께하기(DIO, Do It with Others, Solidarity)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함께하기라는 성파업은 여성들이 스스로 족쇄를 벗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여 새로운 주체가 되게 하는 미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집단지능은 여성의 몸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성 파업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성의 몸이 사회적 주체성을 갖게 하고,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 뤼시스트라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에로스와 퀴로스에서 태어나신 아프로디테께서 우리 가슴과 사지에 매력을 불어넣으시고, 남자들에게 달콤한 긴장을 주시고 남근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아마도 머지않아 헬라스에서 전쟁 해결사라 불릴 거예요. (L. 551-554)

적군과 아군의 모든 여성들의 참여로써만 성공할 수 있는 성파업을 통해 그리스의 여성인물들은 '전쟁 해결사'가 된다. 성파업으로써 여성인물들은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상호 호혜적 관계 맺기를 한다. 성파업과 상호 호혜적 관계 맺기는 공동체와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상호 호혜적 관계 맺기로써 가능한 성파업, 성파업으로써 종식시킬 수 있는 전쟁, 전쟁 종식으로써만 가능한 평화회복은 집단지능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리스 희극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현실의 옹벽을 일거에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만, 고대의 지적 매트릭스(intellectual matrix)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전통(Tradition, 대대로 내려오는 관행)은 인간의 성격형성 및 사회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러 받은 동화줄과 같은 것이다. 그 만큼 전통의 힘이 강하고 깨기 어렵다. 하지만 전통을 깨는 사람도 있다 - 전통의 쇠사슬을 경멸하거나 이를 깨트릴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역사적 발전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즉 […] 내적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외적 인습주의자보다 우월하다.[5]

위 글에서의 전통은 사회적 편견(social biases)으로 이해될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전쟁종식과 평화회복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통찰력으로 사회적 편견이 낳은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없애고, 적(enemy) 개념 대신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는다. 새로이 생성된 개념은 사회적 상상계(the social imaginary)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른 전통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인물들의 함께하기는 새로운 역사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

5) Elizabeth Gueskell, *Ruth,* P. 6.

다. 아테네의 뤼시스트라테와 스파르타의 람피토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은 성파업의 성공을 통해, 집단지능의 발현을 통해, 적군과 아군이라는 분리 장벽을 넘어서고,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남성 정치가들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전통을 깬다. 호메로스의 『일리어스』(*Iliad*)에서 내려온 수사학인 "Let war be the business of the men"는 『뤼시스트라테』에서 "Let war be the business of the women"으로 바뀐다.[6]

반전 사상에 동의하고 반전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의 여성인물들은 차이들(differences)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network)로 활동하며, 공동으로(in common) 저항하고, 공동으로 성파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다중'(multitude) 개념의 표상이 될 수 있다.

> 다중은 모든 차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네트워크로, 우리가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마주침의 수단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인식될 수 있다.[7]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다중은 평화라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 즉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적군과 아군 그리고 젊은이와 늙은이 등 온갖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다중은 집단지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성파업과 점거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소속된 폴리스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평화라는 공통된 것을 생산한다. 이들의 차이는 공통된 것의 생산이라 사회적 생산을 위해 극복된다.

---

6) Leo Strauss. *Socrates and Aristotle*, p. 201.
7) Hardt and Negri, *Multitude*, xiii-xiv.

2) 아크로폴리스 점거와 자원의 공정 분배

반전 평화 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인물들은 성파업을 첫 번째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 막대한 기금이 쌓여 있는 한에는"(L. 173) 성파업이라는 단일 방법론으로는 영구적인 평화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뤼시스트라테: 우리는 오늘 중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성 파업)에 관해 합의를 보는 동안 제물을 바치는 척하고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도록 내가 노파들에게 지시해 두었으니까요. (L. 173-179)

뤼시스트라테는 젊은 여성인물이 성파업으로써 반전 평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노파들로 하여금 전쟁자금의 보고(treasury)인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도록 한다. 노파들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빗장과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다"(L. 263-265).

> 노파 코로스: 여자들이 전쟁과 광기로부터 헬라스와 시민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도에서, 황금 투구를 쓰신 도시의 수호 여신이시여, 여자들이 그대의 집을 점거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트리토게네이아(아테네 여신)여. (L. 342-346)

노파들이 전쟁 자금이 쌓여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여 전쟁자금을 봉쇄하자, 신전의 보고를 지키는 감독관은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전쟁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L. 498)며, 노파들의 점거운동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뤼시스트라테는 감독관과 노인 코러스가 주장하는 '돈-전쟁-평화'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

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허구의 실체를 밝히고, 전쟁이 종식된 세상에서 새로운 자금 운영 방법을 제시한다.

> 코러스: 여러분 중 집에 양식이 떨어져 하인들과 수많은 어린 자식들을 먹일 수 없는 이는 우리 집에서 곱게 빻은 밀가루를 가져가세요, 밀가루 한 되면 제법 큰 빵 덩이가 될 거에요. 가난한 이들 중에 누구든 원하는 이는 밀을 받으러 자루와 가죽부대를 들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마네스가 가득 채워드릴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려두지만, 우리 집 대문 가까이는 오지 마시고, 사나운 개 조심하세요. (L. 1205-1215)

성파업과 점거운동에 참여한 여성인물들은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원의 불공정 분배와 제도의 독점을 막고, 공통적인 것의 항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보관된 전쟁 자금을 공동 기금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 파르테논 신전의 보고를 장악한 집단지능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라는 또 다른 공통된 것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테네에서 자본의 지배력은 확대 되었고, 전쟁 자금이라는 자본은 삶권력(bio-power)이 되었다. 아크로폴리스 점거운동은 자본의 삶권력화에 저항하는 운동이다.[8] 노파들의 아크로폴리스 점거는 착취(exploitation)가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와 착취가 조직되는 특정 형식에 대한 반기이다. 아크로폴리스 점거 운동은 고대 그리스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 혁

8)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크로폴리스 점거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Wall Street)의 검거운동(Occupy Movement)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을 요구하는 연극적 행동이다.

"우리 도시는 멋진 발상이 필요해요. 당신의 계획은 말과 행동에서 독창적이어야 해요"(L. 577)라는 코로스의 노래처럼, 혁신과 창조가 가능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실험들이 자유롭게 시도되어야 한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점거운동과 전쟁자금 봉쇄는 자원의 공정 분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크로폴리스 점거 운동을 통해서 파르테논 신전의 전쟁 자금은 삶권력이라는 자본의 힘을 상실하고 집단지능에 의해 재전유되고 공통적인 것이 된다.

공통적인 것은 뤼시스트라테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의 아크로폴리스 점거운동이라는 연극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공통적인 것은 사적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국가(폴리스 체제)의 통제와 규제에 대립한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밖의 영역인 공통적인 것은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개인이 관리하는 '사적인 것'과 국가(폴리스)가 관리하는 '공적인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통적인 것'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에서 공통적인 것은 '성파업'와 '아크로폴리스 점거 운동'과 같은 정치적 움직임(운동 movement)을 통해 제시된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공통적인 것은 전쟁 종식과 평화 체결과 재원의 공정 분배로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재현된다. 공통적인 것을 제도화하려는 연극적 행동(정치적 움직임, 운동)은 정치의 새로운 공간을 여는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자원의 보고를 점거하는 연극적 행동은 전쟁 자금을 봉쇄하여 영구적 평화를 회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공통성"(commonality)의 가능성을 제시한다.[9]

---

9) "공통성은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변이하는 창조

아크로폴리스 점거운동을 통해서 전쟁 자금은 공동 기금이 된다. 공동 기금은 나눔과 보살핌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회적 삶 전체에 스며들어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을 향한 모든 기획은 뤼시스트라테처럼 폴리스 공동체가 공유하는 부와 자원의 관리에 적합한 자치 형식을 발명해야 한다. 뤼시스트라테는 전쟁자금을 공동기금으로 전환하여, 소외되었던 이들을 삶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자치 형식을 마련한다.

『뤼시스트라테』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과 자원의 공정한 관리라는 공통적인 것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턱을 넘는 획기적 변화를 이루기위해서는 정치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뤼시스트라테를 비롯한 적군과 아군의 정치적 조직화는 집단지능으로 가능해진다. 이들은 자연 발생적인 정치적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주체로서 집단지능이다. 집단지능은 함께하고 협력하고, 네크워크 형태로 연결성(connectivity)을 갖는다.

집단지능은 성파업과 점거운동에 함께하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형 인간 존재를 표상한다. 평화, 사랑,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집단지능에서 인간지능의 지속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 존재는 집단지능을 발현할 수 있는 인간지능으로 인해 고정되거나 정체적이지 않고 부단히 만들기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풍부해진다. 『뤼시스트라테』에 나타난 집단지능의 발현을 통해 인간 존재를 집단적 자기 변형 과정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

적 활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 모든 개체가 가진 특이성이다. 공통성은 특이성으로 이루어진 상호 협동의 네트워크가 가진 속성이다"(Hardt and Negri, *Multitude*, p. 475).

3.『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인간증강과 증강현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디오니소스 극장은 공동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극장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플라톤(Plato, BC427-BC347)은 정의와 본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 의해 호도되는 민주정을 극장정으로 비판하였다. 플라톤의 극장정 비판은 '말을 잘해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10] 플라톤의 극장정 비판은 민주정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플라톤은 '그리스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와 통치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수단을 토의하고 고안하는 데 평생을 천착하였다. 플라톤의 극장정과 민주정 비판은 약 200년 지속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덕분이었던 것이다. 결국 플라톤은 급진적 민주주의가 아테네를 위한 최선의 통치 형태라는 결론에 이른다.'[1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게 있어서 인간의 특징은 폴리스에서 정치적 활동을 배우면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데 있다. 정치학과 미학 이론가들의 극장 옹호론과 극장 비판론 모두를 통섭적으로 보건대, 디오니소스 극장이 공동체의 삶을 고도의 상징(연극적 행동과 가치추구)으로써 재현하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연극 무대를 발명했고, 전쟁 중에도 극장에서 반전 사상과 평화 운동을 상상했고, 무대에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디오니시아의 인기로 인해 극장 공연은 지방을 돌며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데모스의 일상생활도 극장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아고라에서 그리고 민회에서 재연하였다. 아테네 폴리스 사회에서 민회-아고라-극장-삶정치는 연결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러한

10) 플라톤,『고르기아스』참조.
11) C. L. R. 제임스,「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녹색평론』.

사회적 배경을 『여인들의 민회』에서 재현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여인들의 민회』에서 민회와 극장을 하나로 아우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정쟁으로 가득한 민회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간이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극장을 통해 민회를 변화시켜보려는 의도로 '여성의 민회 참여'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민회를 무대로 가져와 민회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테네 폴리스 체제에서 민회는 모든 시민들(남성, 자유민)이 참여하여,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공간이었다. '남성 자유민이라는 시민(데모스)은 민회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전시에는 지휘를 맡을 장군들을 임명하고, 폴리스 행정을 조직하고, 관리들을 임명하고 통제하였다. 아테네 폴리스 체제에서 민회는 대의민주주의 정부였다.'[12] 하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인 민회에서 여성인물들은 배제되었고,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이들의 모습은 가려졌다.

프락사고라(Praxagora, 공공집회에서 활동하는 여자)는 일출과 더불어 시작하는 민회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날이 새기 전에 가짜수염, 남편의 외투, 남편의 라코니케 풍의 구도, 램프, 지팡이를 갖추고 서둘러 여인들과 약속한 장소로 향한다. 프락사고라는 옷을 바꿔 입듯이 "완전한 체제의 변화(an unheard-of change of regime)"를 갈구한다.[13] 프락사고라를 비롯한 변장 여성인물들은 "아테나이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L. 53)로서 "시정을 넘겨받아 도시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107-8) 남자로 변장하여, 남성들에게만 허락된 민회로 향한다.

---

12) 같은 논문 참조

13) Leo Strauss, p. 265.

프락사고라: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이며 내 나라요.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참상에 나는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요. 내가 보건대, 우리 도시는 언제나 악당들을 지도자로 임명하기 때문이오. (L. 173-176)

프락사고라는 폴리스에 참상을 가져온 남성들이 주도하는 정치에 환멸감을 토로하고, 민회에 참여하여 남성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14] 프락사고라와 뜻을 함께 하려고 모인 여성인물들은 민회에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숙지하고, 민회에서 할 대중 연설을 연습하고, 좋은 의견에 제청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미리 연습한다.

프락사고라: 여러분은 공금에서 일당을 받으면서도 저마나 사리사욕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공익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아이시모스처럼.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다면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제언하오. 우리가 시정을 여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여인들을 가사 관리인 겸 재산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오.

여인1: 옳소, 옳소, 백번 옳소.

여인2: 이봐요, 계속하시오! (L. 206-214)

『여인들의 민회』에서는 여성인물들의 민회 참여라는 연극적 행동을 통해 남녀노소의 성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실험된다. 프락사고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회에 참여하기로 기획을 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다. 남

14) 여성들의 민회 참여(점거)는 남성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John Zumbrunnen, "Fantasy, Irony, and Economic Justice in Aristophanes' *Assemblywomen and Wealth*,"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2006, p. 325.

자로 변장하여 모인 여성인물들은 그 어떤 차이에도 무관하게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회 참여를 결의한다. 여성인물들은 민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마주침을 조직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민회로 향하는 이들은 더 이상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함께하여 유의미한 사회적(정치적) 주체가 되는 집단지능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회로 향하는 이들은 개방적이고 포괄적 집단으로 의미를 갖는 집단지능이다.

프락사고라는 대중 연설을 통해 여태껏 한 번도 시도 되지 못한 여성들의 민회 참여의 목적을 타락한 정치의 회복과 공통적인 것의 회복이라고 밝힌다. 프락사고라는 여성이 정치 행위에 참여하면, "남의 옷을 낚아채는 일도, 이웃을 시기하는 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반나체로 돌아다니는 일도, 욕설을 퍼붓는 일도, 채무자를 잡아가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L. 567)라며 이전과는 다른 삶과 정치의 비전을 제시한다.

> 프락사고라: 여인들은 어머니인 만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려 할 것이오. 그리고 우리 전사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데서 누가 그들의 어머니보다 더 민첩하겠어요? 재원을 조달하는 데서 여자보다 더 창의적인 존재는 없으며, 여자는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결코 속지 않을 거요. 속이는 것은 여자들의 능사니까요. 다른 점들은 말하지 않고 생략하겠소, 내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게 될 거요" (L. 232-240)

프락사고라는 생명존중, 자원의 공정배분, 부정부패방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프락사고라는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여성 정치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민회에서 이들은 기존의 남성 정치가들이 악당, 도둑, 밀고자이고, 여성들은 "민주정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기"(L. 453) 때문에 여성들에게 도시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락사고라를 비롯한 남장 여성인물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철저히 삶에 기반 한 정치이다. 이들은 삶이 곧 정치인 사회를 추구한다. 그리고 남장 여성인물들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도시를 여자들에게 넘기기로 결의"된다(L. 455).

> 코로스: 우리 도시는 멋진 발상이 필요해요. 당신의 계획은 말과 행동에서 독창적이어야 해요. 케케묵은 것을 되풀이해서 듣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니까요. (L. 577-580)

프락사고라는 "익숙한 옛 것"(L. 585)이라는 아테네 폴리스의 권력 체제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정치 행동 윤리학을 제시한다.

> 프락사고라: 모든 재산을 만인이 공유하여, 모두가 공유 재산으로 살아가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 사람은 넓은 땅을 경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묻힐 땅도 없다거나, 한 사람은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데 다른 사람은 노예가 한 명도 없는 일이 없게 하자는 거죠. (L. 590-593)

프락사고라는 토지 등 모든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금화와 은화 등의 재산은 공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한다.

프락사고라는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여인들의 민회』는 민주적 정치 행동의 윤리학을 성 관계로써 희화화한다. 프락사고라는 성적 매력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성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늙고 못생긴 사람부터 먼저 성적 기회를 갖는다는 프락사고라의 아이디어를 "민주적 발상"(631)이라며 좋아한다. 반면, 블레퓌로스

(Blepyros)는 성 관계로 표출된 성 평등의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블레퓌로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각자는 누가 자기 자식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 프락사고라: 구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들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남자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로 여길 텐데. (L. 635-638)

프락사고라는 성(gender)과 성관계의 평등 문제를 교차하여, 사적 이익 너머 공적 이익을 추구하고, 남성 중심적이며 위계적인 살부(殺父)의 정치를 종식시키려고 한다. 젊고 매력적인 이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 소외되고 늙은 이성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성 관계의 평등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락사고라는 외설적 상징을 통해서 제 2의 오이디푸스를 방지할 수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성(sex)으로 사회적 성(gender)의 변화와 삶정치의 변화라는 새로운 가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매우 행복한 상태"와 "풍부한 정신과 교양과 기지"라는 고대 그리스의 포에지(poesie)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15]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성관계의 문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과 같은 사회의 공공성을 희화한 것이다. 즉 "웃음으로 억압에 대한 해방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16] 늙고 못생긴 사람부터 성 관계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프락사고라의 제안은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개인적인 차원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인 것으

15) 서정혁, 「희극적인 것과 사변적인 것-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대한 헤겔의 해설」, 『헤겔연구』, 26, 2009, p. 107.
16) K. J. Dover, *Aristophanic Comedy*, London, 1972. 참조

로 바라보게 하는 연극적 재현이다.

『여인들의 민회』는 사회적 갈등과 참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성관계에서 도출한다. 프락사고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성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 전반을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성관계와 쾌락의 문제는 공통성(commonality)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희극적 플롯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민회 참여라는 성 평등에서 도출된 성 관계의 평등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연극적 표상이다.

『여인들의 민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 자원의 공정 분배, 성 관계의 평등을 통해서 집단지능이 표방하는 정치 윤리성과 집단지능이 낳은 사회적 주체성을 잘 보여준다. 『여인들의 민회』는 소외되고 배제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성인물들이 사회적 주체성을 갖게 했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적 동력이 되게 했다. 새로운 동력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위계적 권력 체제를 와해하고 새로운 통치제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프락사고라는 만인의 아들이며 만인의 아버지가 되는 가족관계와 늙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사적인 것을 제거하여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인들의 민회』에서 여성인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속하는 다른 공간(증강현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증강현실에서 공통 이익은 함께하는 이들에 의해 재전유된 공통 이익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삶정치적 활동과 일치한다. 이로써 공생공영이라는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삶정치적 공간과 공통된 것의 연결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블레퓌로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할 참이야?
프락사고라: 만인이 참여하는 삶이죠. 나는 벽을 허물어 도시를 만인을 위한 하나의 큰 주택으로 만들어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할 참이에요. (L. 675)

사회적 존재(Social Existence)로서 인간(집단지능)은 참된 의미의 주체가 되기 위해 공동체 참여를 통해 주체성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자기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법 익힌다. 『여인들의 민회』에서는 "아테네에서 아직 시험해본 적이 없는"(L. 457) 자유로운 실험이 성 역할과 성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종국에는 상호 관계적 생활 방식의 생산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다.

프락사고라가 기획한 공통된 것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민회 권력의 신성한 핵심을 탈신비화하고 탈중심화한다. 공통적인 것은 집단지능에 의해 재전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여인들의 민회』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성관계의 평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조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집단지능으로서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여 증강현실을 일궈낸다.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두 가지 기발한 아이어디는 아테네의 모든 인물들의 참여와 동의 그리고 함께하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간의 삶권력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존재하면서도 네트워크 형태로 함께하기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별적 존재로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여성인물들이 함께하기를 통해 집단지능을 발현할 때 비로소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된다. 『여인들의 민회』는 삶과 정치의 근간을 바꿔보려는 연극적 행동(dramatic action, movement)으로 공통적인 것을 회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라는 증강현실을 무대화 한다.

『여인들의 민회』에서의 여성인물들은 현실 정치에서 단 한 번도 허

용되지 않았던 정치적 의사결정권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살아갈 공간을 자율적으로 만든다. 민회 참여로 실현시킨 자치와 자율 정치 그리고 성 평등과 성적 관계를 포함한 상호 호혜적 관계는 공동체의 현실과 공동체의 삶을 증강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집단지능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같은 '생명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상적 삶 공간을 자치와 평등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했다.

4. 집단지능과 새로운 인식론적 영웅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인간지 능의 한 유형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대비되는 인간지능은 개체지능과 집단지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체지능은 그리스 비극의 영웅적 주인공들에게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한 개별적 영웅의 새로운 가치와 신념 추구에 따른 문제 제기가 가져온 인간 고유성의 발현이다. 집단지능은 그리스 희극에 나타난 주변부의 반주인공들의 함께하기가 이룬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 가져온 인간 고유성의 발현이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성파업을 하고,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고, 그리고 민회를 점거하여 상호 호혜적 관계 맺기를 실천한다. "연극적 행동은 목적이 있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연극적 행동에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뒷받침된다."[17] 이들의 목적과 의지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생성을 가져온다. 집단지능의 연극적 행동들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집단적 창조의 형상물이다. 이들이 일궈낸 공통적 것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같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고정된 질서 너머를 상상하고, 성적 매력이라는 능력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17) Henri Gouhier. 『연극의 본질』, 집문당, 1996, p. 199.

자의 성 관계의 평등을 통해서 위계적 사회 체제 너머를 상상한다. 즉 집단지능은 권력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지식의 가능성과 다른 지식이 가져올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서 나타난 집단지능은 한 명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협력하는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집단지능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함께하기를 기초로 한다. 관계의 회복은 남녀노소 그리고 정치 체제와 신념 등 갖가지 다양체(multiplicity)의 소통과 함께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실질적 요구에 응답한다. 이들의 함께하기 운동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권 불평등에의 도전이었다. 성파업, 아크로폴리스 점거, 민회 점거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이들은 평화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물론이거니와 성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의 상생적 회복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삶을 생산하였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형성된 집단지능은 민주주의적 실천과 함께하기의 핵심으로, 항구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임에 명백해졌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집단지능으로 형성된 협력(나눔과 보살핌) 공동체는 공통적인 것의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공동 기금의 민주적 운영, 자발적 참여, 자율적 책임의식, 반전과 평화, 모든 관계의 회복은 공통적인 것의 가능성을 재현하였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인간의 한계 너머를 지향하고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 가능

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는 집단지능에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함께하기 운동은 연극 무대에 한정된 일회적 극적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론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인식론(epistemology)은 앎(knowing)과 지식(knowledge)에 관한 학문이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주인공들은 지식이 민회와 정치적 결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분배되는 권력(power)으로 기능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와 함께 하는 여성인물들은 전쟁과 불공정과 같은 삶의 참혹함을 불러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삶권력으로 기능하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 보려고 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성파업, 아크로폴리스 점거 운동, 민회 참여는 새로운 지식과 진정한 앎에 다가가는 연극적 행동이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는 지식 체제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연극적 행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향한 자기 교정적 인식론을 추구한다.[18]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인식론적 미덕(epistemic virtue)은 함께하기(going with them)에 있다. 함께하기라는 집단지능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함께하기는 이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간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은 함께하기를 통해 아크로폴리스와 민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강요받은 침묵의 틀을 깨고, 인식론적 경험에 참여한다.'[19]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는 함께하기 이전에는 사회적 의미와

---

18) Boaventura de Sousa Santos, *Epistemology of South,* p. 164.

19) Kristie Dotson, *Tracking Epistemic Violence, Tracking Practices of Silencing,* p. 269.

지식의 생성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의 여성인물들은 그리스 드라마는 물론이거니와 현실 정치에서도 텍스트 해석학에서 배제된 사람들(hermeneutically marginalized groups)이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는 이들을 텍스트 해석학에 포함시켜 텍스트가 되게 한다.[20] 이들의 집단지능과 사회적 경험은 탈중심화를 향하여,[21] 협력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전쟁과 불공정을 야기한 특권층(the privileged)의 중심화를 해체하고 지속적인 자치와 자율로 운영되는 공통성을 회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인식론적 혁명'(epistemological revolution)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은 함께하기를 통해 새로 지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식론적 영웅'(epistemic heroes/heroines)이 된다.[22] 그리스 비극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한 개인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들의 집단지능이 공동체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 그리스 희극은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서 공존과 공생 그리고 협력과 연대를 표상하는 집단지능은 그리스 희극이 새로이 제시하는 인식론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오며

이 글은 인간의 집단지능을 인간 고유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

20) Fricker, Miranda.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p. 6.

21) Medina, José. *The Epistemology of Resistance: Gender and Racial Oppression, Epistemic Injustice, and Resistant Imaginations*. p. 24.

22) 같은 책, p. 225.

아리스토파네스의 두 희극 작품을 고찰하였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행동으로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삶 공간을 생성하여, 인간 존재의 지평을 넓혀 놓았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주요 극적 공간인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아테네 민회는 집단지능에 의해 사적 이익이나 공동체의 권력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평화, 평등, 공정과 같은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공통적인 공간으로 변신한다. 집단지능은 여성을 우리(于里) 밖으로 끄집어내어 남성과 권력의 공간을 상징하는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민회를 위계적 권력 체제에 저항하는 공간, 새로운 생성의 공간, 민주주의 개척자들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 나타난 집단지능은 상상의 유토피아(Utopia)를 실재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 재현하였다. 『뤼시스트라테』의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여인들의 민회』의 민회는 현실에서의 물리적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다른 공간(other spaces)이 된다. 남성과 자본과 같은 삶권력을 상징하였던 아크로폴리스와 민회는 집단지능에 의해 '창조적 생성 공간'으로 거듭난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에서 공통적인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인물들의 네트워크와 집단지능으로 가능해진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은 권력체제에서 배제된 인물들이며 텍스트로서 그리고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하기(연대)를 통해 상호 관계적 생활방식(삶정치)을 복원한다. 이들은 함께하기를 통해 비로소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된 집단지능을 갖게 되고,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집단지능은 사회적 주체가 되어, 새로운 생성의 공간 만들기라는 사회적 생산을 한다.

뤼시스트라테와 프락사고라는 신화와 비극의 영웅적 인물들과는 달리 그간의 정치 현실에서 배제되고 목소리가 지워지고 모습이 가

려진 주변부의 일반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하기를 통해 형성한 집단지능은 자치와 자율 그리고 평화와 평등과 같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조건을 변화시켰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여성 인물들은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통해 집단지능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가 이전과는 다른 지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론과 그간의 무대와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텍스트 해석학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탈중심적인 새로운 휴머니즘 즉 포스트휴머니즘적 전망을 읽을 수 있다.

이 글은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존과 공영, 상호 호혜적 관계 회복,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측면에서 집단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전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집단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감수성에 대한 것으로, 『뤼시스트라테』와 『여인들의 민회』는 인간의 집단지능을 새로운 인식론적 영웅상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2』.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0.

Aristophanes. Aristophanes: *The Complete Plays*. New American Library, 2005.

2. 논문

서정혁. 「희극적인 것과 사변적인 것-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대한 헤겔의 해설」. 『헤겔연구』. 26, 2009, 95-121.

제임스, C. L. R.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녹색평론』. 김종철 옮김. 통권 제141호.

Dotson, Kristie. “Tracking Epistemic Violence, Tracking Practices of Silencing.” Hypatia. Vol. 26. No. 2, 2011, 236–257.
Zumbrunnen, John. “Fantasy, Irony, and Economic Justice in Aristophanes’ *Assemblywomen and Wealth*.”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2006, 319–333.

3. 단행본

Dover, K. J. *Aristophanic Comedy*. London, 1972.
Fricker, Miranda.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UP, 2009.
Gouhier, Henri. 『연극의 본질』. 박미리 옮김. 집문당, 1996.
Gueskell, Elizabeth. *Ruth*. Penguin Classics, 1998.
Medina, José. *The Epistemology of Resistance: Gender and Racial Oppression, Epistemic Injustice, and Resistant Imaginations*. Oxford UP, 2013.
Negri, Antonio & Hardt, Michale. *The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Penguin Books, 2005.
Plato, Gorgias. Trans. Walter Hamilton. Penguin, 2004.
Santos, Boaventura de Sousa. *Epistemologies of the South: Justice Against Epistemicide*. Routledge, 2014.
Strauss, Leo. *Scorates and Aristopanes*. U of Chicago P, 1980.

(투고일: 2020. 10. 31 심사완료일: 2020. 12. 18 게재확정일: 2020. 12. 21)

홍은숙
소 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주 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Posthumanist Perspectives in Ancient Greek Comedy: Collective Intelligence in *Lysistrate* and *Assemblywomen*

Hong, Eun-sook

This paper analyzes ancient Greek comedies of Aristophanes in respect of posthumanism and collective intelligence. 'Sex strike' and 'occupy Acropolis movement' in *Lysistrate* and 'Assembly participation' and 'egalitarianism' in *Assemblywomen* are the dramatic actions that set out to change the biopolitics of the ancient Greek Polis system. Aristophanes represents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periphery who were a hermeneutically marginalized group. With these socially constructed dramatic actio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Lysistrate and Praxagora overcome the practices of silencing, demolish the concepts of enemy and difference, democratize all the things, and produce a new concept of the common. It can therefore be concluded that collective intelligence in *Lysistrate* and *Assemblywomen* brings forth epistemological revolution and makes Lysistrate and Praxagora epistemic heroines. This paper understands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intelligence with the posthumanist perspectives which search for the new possibility of humanity.

Key Words: *Lysistrate, Assemblywomen,* Collective Intelligence, Epistemological Hero, Sex Strike, Occupy Movement